

누가복음 7-8  
Tape #C2531  
By Chuck Smith

누가복음 7장을 펴세요. 이 시점에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생애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과 이적을 말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7:1-5).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군데 백부장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항상 호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훌륭한 사람들 이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랴에 살았던 고넬료를 기억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 하시기를 읊바에 그의 하인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와서 주님의 도를 좀더 완전히 배우도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그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부음을 받는 첫번째 사건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의 역사를 시작하실때 실제로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서 시작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번 언급했고 항상 우호적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도와 주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는것은 내가 확신 하건데 그들이 신약성경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는 않지만 오늘날 까지도 가치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는날에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나는 유대인의 지역사회로부터 가치있는 사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그걸 전적으로 원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상을 줄때 미소 짓는걸보니 분명히 좋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이 칭호는 내 생각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써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주는것으로 이것이 아직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인 백부장의 경우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 주었고 그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찾아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로마제국 에서 종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로마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주가 매년 그의 재산을 조사하여 생산적이고 유익이 되면 두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고 합니다. 가치가 없는것을 없애는 품목중에는 더 이상 일을 할수없는 노예도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예가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면 죽이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가진 재산의 일부이며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죽일찌라도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파괴한것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종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것이 정상적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일반인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는 그의 종을 몹시 사랑했고 그가 거의 죽어 가고 있을때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7:6-7).*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께 하는 천거는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 이라는 것 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까이 오시는것을 발견했을때 그는 다른 친구를 보내어 말씀 드리기를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말을 다른 용어를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것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 오시는것은 예수님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 갔을때 그는 그렇게 한것에 대하여 사과 했습니다. 그는 옹바에 있는 친구를 몇명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것을 사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그러나 그가 유대인에게 금지된것을 행하여 이방인의 집에 들어 갔으므로 그는 사과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예수께 “주께서 내집에 들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심지어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흥미로운것은 시돈 지역에서 한여인이 귀신들린 딸로 인해 예수께로 왔을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로도 대답하시지 않으신것을 기억 하실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그 여인에게 무얼좀 해보세요. 우리를 미치도록 귀찮게 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이스라엘을 위한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께 나아갈수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했을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것은 더우기 감당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께서 꼭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오시는것을 제가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낮겠삽나이다. 저도 권위를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신분임을 이해하며)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7:8).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습니다. 저도 권위에 관해 잘 이해하며 권위에 굴복할뿐만 아니라 또한 저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가지신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으며 제 수하에 여러 사람이 있고 그들의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7:8-9).

유대인들중에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들에게선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지 못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매우 아팠던 (거의 죽었던)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이튿날 (7:1-11).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약 25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7:11-13).

이보다 더 가슴아픈 장면이 없을것입니다. 한 과부가 죽은 독자의 장례식에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디다. 그들은 시체를 바구니에 담아서 옮겨간 후에 정교하게 만든 석관에 넣습니다. 라틴어로 살코파구스 (Sarcophagus) 는 살을 먹는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사람들은 통상 시체를 살코파구스에 넣어 놓고 시체의 살이 다 없어진후에 뼈를 매장합니다.

그리고 난후에 그는 아마도 광주리에 담겨져 매장지나 묘지나 살코파구스에 옮겨 질것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어머니는 슬픈 모습 의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지않고 애곡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헬라어의

동정한다는 말을 여기에서 사용한 불쌍히 여긴다(*compassion*) 는 말보다 더 잘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번 예수에게 사용 되었던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느끼는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7:14-16).*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 보셨다” 는 말은 일장에서 침례요한의 출생시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 사가라의 입을 열었을때 그는 예언하기 시작할때 한 말과 같은것입니다. 일장에 있는 예언의 첫 몇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가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7:17).*

유대지역은 남단까지 60-70 마일 됩니다. 진실로 죽었던 이 젊은이가 예수로 말마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과 온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7:17-20).*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머리위로 내려오는것을 침례요한이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자를 네가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요한은 헤롯의 죄수로 당분간 지하 감옥에 감금 되어있습니다. 그는 야외의 사람이므로 갖혀있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말하자면 밀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가두어 두는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침례요한도 예수의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당장 이룩할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하지?” 그리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 인니까?” 라고 묻은 질문은 실제로 질문이 아니라, “빨리 일을 시작해서 진행시키십시오” 라는 일종의 충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의 왕국과 로마 제국을 뒤엎고 왕국을 당장에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요한은 다른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어떤경우가 되든지 예수의 반응이 아주 재미 있습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21-23).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행한일로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는 “내가 행한 그 일들이 나를 증거 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한 증거로서 그가 하신일을 지적 하셨습니다. “나의 행한일이 나를 증거하며 내게 대한 증거가 되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의 권세와 그의 신분을 밝히기위해 그가 행하신일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은 그의 신분과 그의 권세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에서 예언 되었던것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나위도 없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입니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릴까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나라 의 시기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앓은뱅이가 사슴과 같이 뛰며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병어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가난한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는 요한이 성경을 알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것을 말할때 요한이 그것을 알정도로 성경을 잘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것을 말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7:24)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요단강 지역에는 이러한 갈대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볼수 있는 정경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람에 나는 갈대를 보려고 요단강에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7:25a)

다시말하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후에 예수께서 풍자적으로 말씀 하십니다.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7:25b).

그들은 왕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7:26-28).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을 하나님이 유대인들 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중 제일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자 중에 침례 요한 보다 큰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발언입니다.

이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있는 여러분이 가진 특권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구약시대의 섭리에서의 가장높은 위치보다 더 우수 합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배경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침례 요한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자가 구약의 섭리의 가장 높은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가졌으며 성령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아무런 율법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세금을 받는 사람들) 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 (7:29).

그들은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니라 (7:29-30).

사람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했을때 예수께서 그 순간에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이 사건을 그 가 후에 그것을 사용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노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요,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 하였느냐?” 라고 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수 없노라” 라고 말했으며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사용 하셨습니다. 여기에 요한에 대한 의견이 갈라진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로 부터 배척 당했지만 백성들은 널리 받아들였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7:31-35).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자신을 만족시킬수 없는 위치에 있다. 요한은 와서 금욕생활을 하며 살았을때 너희는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했고 나는 와서 세리들과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먹는다고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 (만찬)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이 여인이 그를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7:40-47).

시몬은 무례한 주인 이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호의 베푸는것을 대단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청할때 샌달을 문앞에 두면 당장 그집의 종이 세수대야에 물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식사하러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기기위해 종을 예비해둡니다. 물론 그 샌달은 튀인 것입니다. 그들이 흙길을 걸을때에 흙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집에 초청되어 그 집에 들어 갈때 (그집의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키스로 맞아들이는것이 풍습 이었습니다. 통상 키스는 양쪽 볼에 합니다. 그것이 통례이고 실제로 오늘날 까지도 그렇게 하는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풍습이며 그문화권에서는 통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것입니다. 또 한가지 통례적으로 행해진것은 기름을 바르는것 이었습니다.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은 그날 저녁에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기쁨의 상징이 었습니다. 그후에 먼저 설탕없는 터키 커피와 같은 커피를 한잔 주는데 그것은 맛이 씁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당신이 겪었던 모든

나쁜경험을 씻어 버린다는것입니다. 두번째 받는 컵은 대단히 단 맛입니다. 그것의 상징은 모든 쓰라린 경험은 씻어 버리고 이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대접을 제대로 하지못한 주인 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호의를 하나도 베풀지 않았 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도 씻어 주지 않았고 그의 머리에 기름도 발라 주지 않았습니 다. 그의 집에 들어 가실때 키스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의 발을 눈물로 씻었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계속해서 그의 발에 입맞추고 그의 발에 기름을 발랐습니 다. 그리고 여기에 거만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의 시몬이 앉아있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으리라” 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몬은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을것입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므로 그 여인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으로 내게 손 대지 못하게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에게 손을 댈수 있는것은 참으로 기쁜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쁠지라도 손을 내 밀어 주님을 만질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가 만질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 빛진 사람이 있는 주인에 관한 예화를 들려 주셨습 니다.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다른 한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사람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면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 받은자 라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런후 예수께서 “네 판단이 옳다. 이 여자는 그의 죄가 많으나 용서 받았으므로 나를 더 사랑 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 하셨으며 분명히 믿기에 이 선언이 시몬으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을것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7:48).*

이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기대 하셨습니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7:48-49).*

오, 이것 참 재미 있네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관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한걸음 앞서게 했으며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섭리에 들어갔습니 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7:50).*



죄의 용서를 받는것은 항상 믿음의 결과입니다.

## Chapter 8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 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8:1-2).*

그 여인은 막달라 라는 동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마리아 라는 사람이 여러명이 있으며 그 여인은 막달 마리아 혹은 막달라인 마리아로 밝힙니다. 예수께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라는 이름은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고 어린 소년들에게 많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녀의 고향이 막달라 이기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것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8:2-3).*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이 여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필요한것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 희생한 이 여인들에게 하늘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있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들은 바도 없고 그들에 관하여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며 하늘나라에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는것도 재미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내 아내같이 그들의 머리와 눈의 색깔과 그들의 입은옷에 대하여 내가 기억할수있는것보다 더 자세 하게 이야기해 줄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여러가지 사실을 기록한것이 있으나 이 여인들은 우리에게 복음서에 없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것이고 그 내용을 잘 맞추어 줄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 하고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해안에서 에베소로 부터 온 장로들에게 말할때 그는 이것이 아마도 그들을 보는 마지막 기회일것임을 알고 말하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노라” 그는 그의 에베소서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할때 너희들에게 보여 주었고 또한 가르쳤노라” 고 말했습니다.

강의로 배울수 있는것도 많지만 강의로 배울수 없는것도 많으며 어떤것은 관찰로 배워야 합니다. 한 개인의 생활은 그가 전파하는것을 보여 줍니다. 많은 경우에 한 개인이 전파하는것과 그의 생활이 화합하지 않으므로 그가 전파한것을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께서는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의 멧세지를(삶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야했던 중심이 되는 메시지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나라와 하늘나라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차이를 찾고 영적인 의미와 비밀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형제여, 하나님이 네게 하늘나라와 하나님나라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가?” 라고 말하는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마태는 통상 하늘나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나라 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관주를 찾아보면 두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했음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것이 세상에 올때에는 통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 산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왕국 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 하실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어떤것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신 아버지에게 완전히 복종할때의 삶이 어떠한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깊은 영적 비밀을 끄집어 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것 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린 아이라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간단해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 갈수 없습니다. 허무 맹랑한 신비나 영적인것으로 만드는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어려운 비밀이 아니라 찾는 사람에게 계시된것 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느끼고 이해할수 있는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 가려면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섬기고 싶어” 라고 말하는것 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삶의 왕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는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 하실것 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메시야가 오실때 그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 건설하시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것임을 기억 하십시오. 심지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 14:16) 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때가 이 때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가 이 때 입니까?”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이유는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 신문에서 지난달에 성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통계를 보고, 이 어린 아이들이 당한 일들을 읽을때 내 가슴은 심히 아프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염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었던것입니다. “주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것이 얼마나 더 계속 되어야 합니까? 주여,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의 왕국을 빨리 건설하시는것이 나의 기도 입니다. 제 생각으론 인류가 이 상태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인류가 오래동안 살아 남지 못할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곧 건설하시는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자들을 바라볼때 그들이 살면서 자라가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일 부도덕한 사람이 내 손자들중 하나를 건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를 보석해주셔야 할것입니다. 나는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이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기쁜 소식 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게 될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실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영원토록 갖게 될것입니다. 사막에도 장미처럼 만발하게 될것이며 시내가 흐르게 될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눈먼자는 눈이 열려 보게 될것이요, 저는자는 걷게 되어 사슴과 같이 뿔것입니다. 이런것들은 예수께서 병든자들을 치료 하실적에 보여준 것들 입니다. 그가 무리들에게 먹을것을 주셨을 때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고 살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 스투게 될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하였고 또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 하셨을때 천사들은 그사건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천사는 이러한 말을 사용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0).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탄생 하셨으니 그가 오셨고 베들레헴에 계시느니라. 그는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싸인 아기를 보리라.”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그들은 하늘 나라의 조건들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가 말한대로 이 아기가 가져온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보기 시작할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그의 사랑으로 채우실때 평강도 함께 채워 주십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8:4-8).*

예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교회에 주신 메시지에서조차 각교회 에게 반복하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찌어다.”

하나님이 말씀 하시려는것을 우리가 들을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할 말씀을 들을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것 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제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을 귀도 주세요.”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전혀 배울수 없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내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고 받아드리도록 하시는 성령을 떠나서는 영적인 진리를 전혀 배울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신령한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들을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8:9-11).*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의 흙에 떨어지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네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보여 주십니다.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8:12).*

당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니다. 그러나 당장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가로챘습니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던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8:13a)*

그들은 굉장한 감격스러운 경험을 합니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완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8:13-14).*

그들의 삶에서 오는 진짜 열매가 없습니니다. 그들이 듣고 받지만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한 결실이 없습니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8:15).*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살피고 점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흠에 떨어 졌습니니까? 네가지 종류로 구분된것: 가, 나, 다, 라 중 어느것에 여러분이 속한다고 느끼십니까? 잠시동안 솔직하게 마음을 살펴보는것도 좋으리라고 생각 합니니다. 내가 온전히 결실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 기운을 막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어떤 흠에 떨어졌는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인내해야 결실 할수있습니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8:16-18).*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것을 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입니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놓은 작은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인도 하시지 않을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 즉 하나님을 위한 거대한 일에 뛰어듭니다. 거기가 그들이 원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학교를 원하지도 않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시간도, 유아부에서 도와줄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계급에 따라서 승진시킵니다. 작은일에서 시작하여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작은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왕국의 일들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후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8:19-21).*

앞에 나온 예화에서 행하는것을 강조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 형제의 관계를 가졌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8:22-25).*

재미있는것은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있을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꾸짖어신것입니다. 재미 있는건 아무리 보아도 배가 가라앉을것 같이 보인다는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22절에 있는 말씀, “호수 저편으로 건너 가자” 라고 하셨을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디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의 말씀을 가졌을때 배가 갈아 앓을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 있는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해서 듣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그들이 물에 빠질까 두려워했을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8:26).*

가다라 도시는 최근 지난 2년안에 발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다라 시가지 를 발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군들이 골란하이트로 들어가는 신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디다. 신도로를 만들때에 이 폐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업을 중단하고 고고학자들을 불러 들였으며 그들은 오래된 가다라 시가지의 모습을 발견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수 백 야드 읍겼고 현재 가다라 시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미 있게도 가다라 시에서 약 2 마일 떨어진곳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으며 바다로 들어가는 가파른 벼랑이

있는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예수께서 배로 내리셨던곳으로 오늘날도 확인될수 있으며 그곳은 옛도시 가다라의 폐허와 가까운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지역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오셨던 곳입니다.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8:27).

돌로된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8:28-31).

헬라어로 깊다는 말은 아부쏘 (abusso) 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신약의 다른곳에는 무저갱으로 번역 되어 있습니다.

죽은 악인과 불순종한 천사들과 영들이 거하는 장소를 언급한곳이 성경에 네 군데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이 감금되어 심판날 까지 기다리는곳이 있으며 타타라스 (Tartaras) 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날 까지 타타라스의 쇠 고랑에 묶여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지에는 성경에서 하데스 (Hades) 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로는 음부 (Sheol)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흔히 음부라고 번역되었고 많은 경우에 지옥으로 번역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는 그것이 두 곳으로 갈라져 있었으며 누가복음 16장에 이르게 되면 하데스 라고 알려진 지구의 중심인 이곳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구의 중심에 있다는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했을때 그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 12:39-40).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을때 그는 지옥, 음부, 또는 지구의 중심에 있는 이 부분에 까지 내려 가셨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께서 거기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 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 하실때 포로 되어 있던 포로들을 인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 하며” 라고 한 예언을 성취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부활때에 포로된 자들을 인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승천 했습니다. 그러나 음부는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었으며 양쪽에서 왕래 할수없습니다. 우리가 곧 누가복음 16을 배울것 입니다. 16장에 갈때 까지 참으시면 거기서 좀더 이야기할것이 있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 지구의 표면에서 음부로 내려가는 갭도가 있습니다. 이 갭도를 성경에서 무저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번역 하면 바닥이 없는 갭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갭도는 악령들이 감금되어 거처하는 곳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 갭도 즉 무저갱 에서 올라 올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1,000 년 동안 사단이 묶여 있을때 그는 적그리스도가 나온 똑 같은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계시록에서 이 땅에 대 환난과 심판이 있을 동안 무저갱의 열쇠를 한 천사에게 줍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열때 계시록에서 그림을 그리듯 설명한 이 짐승들이 나와서 지구 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 환난이 지속 되는 동안 이 귀신의 무리들이 놓여져서 사람들을 공격 합니다. 이러한 공상 영화를 만드는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 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올 이 짐승들에 관해 자세히 읽어보면 이 귀신들은 실제로 유령들이며 귀신 자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할것 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결과는 지구상의 인구의 1/3 이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들이 6 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만하는 능력을 가졌 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 말과 같은 짐승들에게 죽일수 있는 능력을 주기 시작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지구의 인구의 1/3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하시며 그들을 불못 (게헤나) 에 던져 넣습니다. 지옥 (게헤나) 는 밖에 있는 어두운곳 이라고 묘사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얼마나 멀리까지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서 120 억광년 떨어진 은하계 를 발견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나가면 당신의 측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는 모르겠 습니다. 그러나 10 억년의 오차는 있겠지요. 그러나 계속하여 가장 먼 은하계를 지나고 더 계속 하여 은하계의 빛이 반짝이지 않는곳 까지 계속해서 나가면 그 밖에 게헤나 (불못) 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게헤나가 흑암의 구멍 (Black hole) 일수도 있습니다. 모든것을 흡수하며 거기엔 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피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어두운 바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곳은 예수께서 이 땅에 돌아 오실때 적 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던져 넣을 곳 입니다. 1,000 년 후에 사단은 이 무저갱에서 다시 놓이게 됩니다. 왕국시대에 예수께서 1,000 년 동안 통치 하실때 사단과 귀신들이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 후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주목 하세요. 이번에 저들을 무저갱에 보내라고 명하지 마시기를 예수께 간청했습 니다. 귀신들은 그들을 무저갱에 보내는 때가 닥아 오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더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 다. “우리를 괴롭게 마옵소서.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무저갱에 보내지 않으셨습니 다. 그러나 사단이 묶일때 그들도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놓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그의 통치에 대하여 반항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후에 그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지옥(게헤나) 에 던져지며 그 후에 모든 사람이 대소간에 하나님의 백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기었으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음이라. 그러나 이것은 둘째 사망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악인에게 내릴 심판 입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하며 빛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들을 바깥 어두운곳에 던져 넣습니다.

오래곤에 있는 동굴에서 불을 완전히 켜줍니다. 그때 안내원이 말하는대로 완전한 어둠을 경험 했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움직임이라도 느끼는가 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 그러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억누르는것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불을 켜올때 나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어둠이 금방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억에 선명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관해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닦아 있으며 벌레도 죽지 않느니라.” 계시록에서 지옥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네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것입니다. 흠으로 된 장막이 무너질때 우리는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집을 갖게될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막 즉 흠으로 된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사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몸이 없는 영으로 있지 않고 손으로 지은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할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장막에서 떠나는것을 선택할것입니다.

어느날 척 스미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거든 그 잘못된 보도를 믿지 마십시오. 척 스미스가 낡은 장막에서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 한 것입니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것 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11:26).

그러나 그들은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8:32)*

그것은 불법 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약이나 아편을 기르는것과 똑 같습니다. 이 귀신들은 군대처럼 많았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8:32-33).*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8:34-35).*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고랑에 채여있지도 않고 벌거벗지도 또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는 옷을 입고 옹은 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8:35-37).

그것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구원보다 돼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돼지의 손실이 한 사람의 건강 보다 더 큰 관심거리 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호수 건너편, 즉 가버나움으로)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8:38-40).

호수 건너편에서는 “제발 이곳에서 떠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것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 두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웅위하더라 이에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웅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8:41-46).

재미있는건 무리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미는데 군중 중에 오직 한사람만 그를 만졌다는것입니다. 그 여인의 만지는것은 무리들이 밀면서 모여드는것과는 달랐습니다. 군중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사역하시는것을 보면 참 재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군중으로 함께모여 밀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진실로 주님을 만지고 또 당신의 삶에 예수님의 만짐을 받습니까?

여기에 두가지 대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건을 읽기 12년 전에 이 여인은 쇠약해지는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출혈이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로 치료를 받았으나 돈은 다 낭비 되었고 그 여인의

건강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인이 출혈하는것은 의례적인면에서 불결하고 회당이나 예배하는곳에 들어 갈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12년간 고생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출혈할때 남자가 여자 에게 가까이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 할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여지도 없이 이 결과로 이 여인은 빈혈증도 있고 몸이 약해 졌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절망과 캄캄한 가운데 살았는데 점점 더 악화 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12년전에 야이로의 집에는 딸이 탄생 했습니다. 말할 여지도 없이 작은 딸은 기쁨과 행복과 빛과 웃음과 아름다움을 집안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12년 동안 이 작은 딸이 인격이 형성 되면서 자라는것과 이 귀염둥이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것 을 바라보며 기뻐 했습니다. 한 집에는 어두움과 실망의 12년 이었고 또 다른 한집에서는 웃음과 아름다움의 12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각도에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이 두 경우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보다 사정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단 한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그를 만지는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빛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그 처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 그의 귀여운 딸이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모셔 오는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때, 소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긴박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멈추었을때, 내 짐작으로는 예수께서 사소한 일로 멈추시는것으로 인해 야이로는 약간 화가 났을것 입니다. “내게 손댄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실때 우리들도 그와 함께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 짐작으로 야이로가 “주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 딸이 죽어 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급한것을 이해 하지 못하시는군요. 왜 우리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졌다고 사소한 일로 멈추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일을 지속 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반대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자가 누구냐?’ 가 무슨 말씀 입니까?”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자가 있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간줄 내가 아노라” 고 대답 하셨습니다. 그랬을때 이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년이 야이로 에게는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2년 전에 나는 사회와 가족에게서 배척 당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내가 만지는 그 순간 내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걸 느꼈고 또한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 하신후에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8:48).*  
 예수께서 말씀 하실때 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밋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느므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8:49-54).

헬라어로 이 단어는 나의 어린 아이 라는 뜻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12세 소녀는 아름다웠음이 분명 합니다. 예쁘지 않은 12세 소녀를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 입니까?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나의 어린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은 대단히 가까움을 나타내는 헬라 말입니다.

그 영이 (다시) 돌아와 (8:55),

보시다시피, 죽을때 우리의 영은 몸에서 떠나간다는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이 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몸속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영이지 몸이 아닙니다. 몸은 내가 당분간 거주하는 장막일 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며 이 지구상의 모든 조건에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만드신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것 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할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하신것 입니다. 진정한 나는 내 영입니다. 어느날 내 영이 이 몸에서 이사를 나갈것입니다.

이제 그 소녀의 영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이 나갔을때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영이 몸을 떠나 갔던것이지요. 그러나 이젠 그 영이 그 소녀의 몸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8:55-56).

예수의 사역에 조금 눈을 뜨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의 기사를 쓴 누가는 의사이며그는 예수를 사람들에게로 이끄는 여러가지 병고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헬라어의 의학 용어들을 사용했으며 예수께서 고치신것을 여기에 묘사한것과 같은 질병에 관한 기록들과 이 용어들이 헬라 고전 에서도 발견 됩니다.

이 다음 번에는 9 장과 10장을 공부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축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